영화 네버랜드

장르 드라마

* 시놉시스

28년 동안(작은 다툼은 있었지만) 종교 강요에 순응하고 살아가던 하음, 자신의 무의식 속에서 그토록 바라던 자유를 만끽하는 것 같은 소이의 모습에 반하게 되고(사랑에 빠지다 X), 친해지는 과정에서 무의식 속에만 자리하던 자유에 대한 갈망이 깊어지게 된다. 그렇게 집안에서 괜히 반항 한 번 해보다가 자유는 커녕 28살 먹고 외출 금지 신세를 지게 된다. 직업 특성상 원래도 집에서만 지냈지만, 자의적이 아닌 타의적으로 갇혀 지내니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집중력이 흐려지며 소이와 나눴던 대화들이 떠오른다.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자유를 억압받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그제서야 소이가 진정으로 부러워진다. 소이처럼 하음도 자신의 삶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한다. 태연하게 평소의 하음의 모습으로 돌아와 억압에 순응한 척 연기하며 "외출금지령"에서 벗어난다. 그 후로 일을 성실하게 하는 듯 보였지만 여러 가지 꾀를 부리며탈출의 꿈을 꾸는 하음. 왠지 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답을 알고 있을 것 같아 소이와 같은 행선지로 향한다.

● 등장인물

- 김 하음 (여 / 28살 / 일러스트레이터 )

이름부터 하음. 하나님을 믿음.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다. 부활절이면 부활절, 유월절이면 유월절, 온갖 행사란 행사부터 아침 새벽기도까지 교회에 억지로 끌려가던 어린 시절을 지내왔다. 28살이 된 지금까지 자취 한 번 못 해보고 집에서 잡혀 산다. 매일 같이 가던 교회에서 소이를 발견하고 또 다른 계기로 소이와 마주친다. 소이를 만난 뒤 삶에 주체성을 가지게 된다. 반항 아닌 반항도 하며 틈틈이 모은 돈으로 소이가 떠난 네덜란드로 떠난다.

- 박 정옥 (여 / 50살 )

하음의 엄마. 성경책을 항상 가방에 들고 다니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다닌다. 억척스럽고 신념이 굳건한 편. 하음을 사랑과 성경으로 키워냈다. 하음이 보란 듯이 잘 자라준 이유는 교회, 그 중에서도 다 하나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하음이 제발 엇나가는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음에게 끊임없이 종교 생활을 강요한다.

- 정 소이 (여 / 29살)

외동딸로 태어나 자유로운 분위기의 집에서 자랐다. 밝은 성격에 해보고 싶은 건 해보는 성격. 하지만 무리한 일이라면 포기도 빠르다. 네덜란드로 떠날 마음을 먹고, 돈을 모아 티켓을 산다. 한국을 떠나기 전 어릴 때부터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작성해 버킷리스트를 만든다. 버킷리스트 중 교회가서 헌금안하고 밥먹기를 하던 중에 하음을 만나게 되고 한국을 떠나기 전 하음과 시간을 보낸다.

***S#1 – 하음의 본가 거실 (D)***

블랙 화면에 얇은 종이가 차락 넘어가는 소리가 두 번, 그리고 무언가를 바닥에 내려놓는 소리가 들린다. 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조곤조곤 작게 말하는 목소리.

**정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 **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작고 여린 생명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가** **정의 축복을 돋아주시어…. 사랑으로 보듬고, 성경으로 치유하리니.**

화면 F.I 벽에 걸려있는 성경 말씀 액자. 손글씨로 쓴 자잘한 열쇠고리 등을 훑으며 차례로 보여준다. 베란다에서 비추는 빛이 강렬하다. 정옥을 덮어버릴 것처럼 센 햇살. 바닥에 놓인 목재로 만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정옥. 감고 있던 눈을 뜬다.

기도를 마치고 입꼬리를 올려 웃는 정옥. 목소리가 멈추고 화면 BLACK

**S#6 하음의 집(D/N)**

교회를 다녀온 저녁. 정옥이 식탁에 까맣고 커다란 핸드백을 올려놓고 지퍼를 연다. 크게 벌려진 핸드백에 식탁에 쌓아놨던 교회 이름이 쓰여있는 물티슈를 차곡차곡 챙기고, 교회 행사 팜플렛을 야무지게 꾹꾹 챙겨넣는다. 그리고 그 위로 진갈색의 커버를 씌운 성경책을 올리는 손은 아주 조심스럽다. 방에서 나온 하음. 나오자 말자 보이는 정옥의 가방을 보고 한숨을 쉰다.

**하음** **(지친 목소리로) 그것 좀 그만 하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알아?**

**정옥** **안 싫어해. 어제도 학생 하나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손 내밀었더니, 덥썩 잡더라. 다들 방법을 모르는 거지, 알면 쉬워.**

**하음** 그**래서... 그 학생은 행복하대? 불쑥 내미는 손잡았더니 구원받은 기분이고 그렇대?**

**정옥** **도와주진 못할 망정 따박따박 말 대답하지마. 너도 저번처럼 같이 나가는 수가 있어.**

**S#8 공원 거리 / (D)**

**CUT TO**

몇 개 없는 사진을 한 참 돌려보는 소이. 손목에 시계를 한번 보고 꽤 지체된 시간에 조금 짜증난 표정의 하음. 카메라를 보는 소이와 시계를 번갈아 본다.

**하음 저기 돈이나 이런 거 드릴 테니까…**

하음이 말을 걸자 소이가 고개를 돌려 하음을 쳐다본다.

**소이 돈 말고 제 얘기 좀 들어주실래요?**

**하음 예?...**

**소이 얘기 들어주시면 제가 사진 허락해드릴게요!**

웃음기 섞인 소이의 모습에 경계하는 표정의 하음. 허락이 떨어지기도 전에 소이는 몸을 일으켜 하음의 앞에 선다. 목에는 하음이의 카메라를 걸고 있다.

**소이 (오바스럽게) 저는 정 소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28살! 외동딸이고, 알바로 돈 벌고 있지만, 현재는 알바 관두고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전공을 살려서… 근데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슬픈 표정으로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며) 돈도 다 모았고 마음의 준비도 다 했는데… (목조르는 시늉을 하며) 못 가게 막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구요… (두 손을 모으고 왼쪽 얼굴을 기대며) 그래서 기댈 곳이 필요하기도 하고… (잠시 정적)**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소이의 모습에 하음은 집중해서 듣는다. 심각해 보이는 하음의 표정을 살피던 소이. 말을 하다 웃음을 터트린다. 하음의 옆에 다시 앉으며

**소이 (웃음기 어린 목소리) 거짓말이에요! 뭐 그렇게 심각하게 듣지? 나 그쪽 기억나요. 교회에서 제가 윙크까지 보냈는데 기억 안 날 리가 없죠.**

**하음 예? 아…?**

**소이 사진 찍으시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먼저 말 걸어 주시기 전까지 기다렸어요**

경계심과 긴장이 풀린 표정의 하음이 피식 웃는다. 소이도 같이 씩 웃는다.

**소이 사진 쓰셔도 돼요!**

**하음 고마워요…**

**소이 근데 무슨 일 하시길래 사진을 찍으러 나오셨어요?**

**하음 아 저는 일러스트레이터에요..그냥 외주 받아서 그림 그리고 그런 일?**

**소이 오! 그림 그리시는구나 대박~**

잠시 고민하는 표정의 소이는 하음을 이끌고 아까 자신이 서 있던 자리에 세운다.

**소이 저도 얘기 드렸으니까! 그쪽도!**

**하음 예? 아니..**

쭈뼛거리는 하음. 자신을 빤히 바라보는 소이에 깊은 심호흡을 한 번 한다.

**하음 저는 28살… 김하음입니다.. (어색한 듯 두 손을 모으고 꼼지락거린다) 직업은 아까 말했듯 일러스트레이터구요. 어…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고..형제는 없습니다. 그리고…(고개를 돌려 왼쪽을 바라본다.) 하고 싶은 건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흘러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말을 끝내자 자리로 돌아가 앉는 하음.

**S#14 용마랜드 벤치 (D/N)**

하음과 소이가 벤치에 와서 앉는다. 하음은 똑바로 앉고 소이는 하음 쪽으로 몸을 비스듬히 돌린채 다리를 꼬고 있다. 구두를 신어서 조금 아픈지 종아리를 주무르던 하음을 보던 소이.

**소이 그러게. 맞선 안 간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런 구두 신고 나올 일도 없고.**

**하음 안 간다고 사실대로 말하면 큰일나요.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소이 오늘은 거짓말하고 나왔잖아요.**

**하음 그러게요… 근데 좀 겁나요. 집에 가면 혼나니까.**

**소이 (이해 안 된다는 듯이) 왜? 난 내가 하고 싶은 게 제일 중요한데.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난, 고등학교 때 수업 듣기 싫어서 몰래 나간 적도 있어요. 아, 한쪽 귀에 이어폰 꽂고 노래 들은 적도 있었다.**

**하음 걸리면 혼날 텐데…**

**소이 혼나면 되죠. 그게 뭐가 무섭다고.**

생각보다 더 간단한 소이의 대답에 뒤늦게 고개를 작게 끄덕이는 하음.

**하음 난 수도 없이 혼났어요. 교회 가는 거 싫다고 했다가 혼나고. 성경책 잃어버렸다고 혼나고… 어렸을 때 뭐 모르고 친구 성당 따라 갔다가 엄청 혼나고…**

**소이 혼날 걸 두려워하지 마요. 나도 지금까지 나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그런지 엄청 혼났어요. 근데 난, 아무렇지도 않던데…**

마침 울리는 하음의 핸드폰. 엄마인 정옥의 전화다. 핸드폰을 손에 쥐고 받기를 망설이는 하음. 받는 버튼을 누르려던 하음이 소이의 말에 멈칫한다.

**소이 (하음의 핸드폰을 슬쩍 보고 혼잣말 하듯이) 나 같으면 안 받는다-**

하음이 핸드폰을 쥐고 있다 가방에 넣는다. 그리고 소이를 바라보는데 마주치는 눈. 하음이 조금 멀리 있는 곳을 가리킨다.

**하음 버킷리스트에 있는 코끼리. 저것도 돼요?**

하음의 손 끝에 분홍색과 파란색의 코끼리 놀이기구 두 개가 있다. 낡은 듯 보이는 놀이기구. 하음이 먼저 일어나 가고, 소이가 뒤따른다. 하음이 코끼리 옆에 서서 허리를 숙이고 코끼리 코를 돌기 시작하고, 소이가 제 버킷리스트에 있던 ‘코끼리 옆에서 코끼리 코 돌기’를 떠올리고 크게 웃는다.